



한울림 교회

방송설교

KRB(FM87.7)
토 6:30pm / 주일 6:30AM

단비 TV
본방-토 9PM/재방 월 11AM

Youtube - 한울림TV

www.hpcny.org
hulpcny@gmail.com

섬기는 사람들

전도사

차유미

목사

김원재, 양명철, 한성욱

오전 11시

교회소식

11월의기도

성찬식

찬양*

기도인도

봉헌*

말씀교독

특별찬양

말씀선포

찬양과결단*

축도*

성찬주일

예배 인도: 김원재목사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다같이

인도자

다같이

다같이

샤마임찬양대

김원재

다같이

인도자

교회를 위한 기도
신앙고백
고전 11:23-28
오 나의 주님 친히 뵈오니(찬 228)

특송(김은희) - 세상을 사는 지혜

결단의기도

피난처 있으니(찬 70)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

아무것도 두려워말라

만 가지 은혜를(찬 216장 4절)

사도행전 22:12-21

내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은혜”

내 맘의 주여 소망되소서(찬 484)

* 일어서서

(서기 힘든 분들은 앞쪽으로 와서 앉으시거나

그 자리에서 앉아 계셔도 됩니다)

1. 오늘 예배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2. 11월의 기도는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주일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3. **오늘은 성찬주일입니다.** 영상으로 성찬식을 진행할 때, 각 가정에서 준비하신 빵과 포도음료로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4. **1부예배(9시)**가 오늘부터 교사와 교역자들을 위한 예배로 시작합니다.
5. 이번 주 토요일(11/13) 새벽기도회는 **“온가족새벽예배”**로 드립니다. 자녀들과 함께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6. **추수감사주일(11/21)에 “사랑의 나눔”을 합니다.** 감사한 마음을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7. **새예배당 Plumbing Inspection**이 11월 9일(화)에 있습니다.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8. **교회 비품 및 물건들**을 집에 보관하고 있는 교우께서는 교역자에게 알려주시거나 주일에 교회로 가져와주시기 바랍니다.
9. **삶공부 “생명의삶”**이 오늘 오후 1시에 친교실에서 있습니다.
10. **현장새벽기도회가 “목~토”**에 있습니다. “월~토” 영상새벽기도회도 계속 되고 있습니다. 적어도 1주일에 한 번은 새벽기도회에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Zoom ID: 3213210608 / PW: 0608
11. 우리 교회 설교가 KRB 라디오방송(FM 87.7, FM 101.5, HD Radio FM 93.5-4 토 6:30PM, 주일 6:30AM), 단비 기독교TV(토 9:00PM, 월 11:00AM), youtube의 한울림TV(설교와 칼럼)를 통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도의 수단으로 삼아 잘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 전도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11월에는

오늘(7일)부터 1부예배가 다시 시작합니다. 여전히 코비드는 일상에 영향을 주고 있지만, 조금씩 교회는 정상을 회복하기 위해 애쓰고 있습니다. 1부예배(오전 9시)는 그동안 오전 11시 예배에 참석하기 어려웠던 교역자와 교사들이 우선적으로 참석하는 예배입니다. 장소 관계로 인해서 참석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교역자에게 미리 말하고 참석하셔야 합니다. 코비드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조심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이 백신 접종을 하였지만, 백신을 접종해도 돌파감염될 여지가 있기에 불편하더라도 조심하여야 합니다. 조심은 하지만, 그렇다고 두려워하고 염려만 해서도 안된다고 생각하기에 교회는 조금씩 회복을 향한 변화를 이어갈 것입니다.

11월 21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예년에는 추수감사주일에 기쁨의 예배를 함께 드리고, 친교 시간에 음식을 나누며 이웃을 초청해서 복된 시간을 가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특별히 2019년에는 우리가 준비한 음식으로 미국 교회 성도들과도 기쁘게 나누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는 엄중한 코비드 상황인지라 아무 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는 이웃을 초청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만이라도 음식을 나누며 함께 친교를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에 대해 당회원들과 함께 의논을 했지만, 아직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아직은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금년에도 성도들이 함께하는 추수감사절 만찬은 없을 것입니다.

만찬이 없다고 추수감사절의 감사한 마음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렵고 힘든 시기이지만 한 해를 지켜주신 주님께 감사하고 사랑하는 마음은 여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마음을 이웃과 나눌 수 있어야 하기에, **추수감사주일에 “사랑의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성도들이 사랑의 나눔 물품들 - 과일, 쌀, 김치, 참치캔, 스펀, 저장식품(통조림), 과자류, 보관이 용이한 된장, 고추장 등 - 을 가져오셔서 헌물해주시면 그것들을 사랑의 집을 비롯한 노숙자 쉼터와 필요한 곳에 전달하려고 합니다. 가정의 자녀들이 있으면 함께 하시면 더욱 좋습니다.

부쩍 기온이 떨어진 요즘입니다. 코비드로 인한 경제 상황도 여전히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감사의 마음은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감사의 마음을 이웃들과 나눌 수 있다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